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3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이승모 · 최상훈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5%	20번	(독서 : 인문) - 비판 내용 추론
오답률 4위	42%	28번	(독서 : 사회) - 중요 개념 추론
오답률 3위	52%	2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6%	41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60%	42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서유영, ‘육미당기’ / 현대소설 : 윤후명, ‘원숭이는 없다’

[문법] 11번, 14번, 15번

[독서] 기술 지문 : 이진 탐색 트리와 B-트리를 통한 자료 처리 및 탐색 과정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5%) 예측] : 독서-인문 20번 문항

[비판 내용 추론]	
	<p>20.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신에 관한 '데카르트'의 견해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보 기 &gt;</p> <p>ㄱ. '완전성' 개념이 신에게서만 유래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추론에 의한 것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p> <p>ㄴ. 완전한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텐데, 왜 '완전성' 개념이 오직 신에게서만 유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p> <p>ㄷ. 신이 최초의 운동을 일으킨 제1원인이라면 신이 물체의 운동에 개입한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p> <p>ㄹ. 인간이 오직 신에게서만 유래할 수 있는 관념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관념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p> </div> <p>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①]</b></p>
<b>[Killer-Point]</b>	<p>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각 선지의 내용들 중 지문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p> <p>보통 이런 비판 내용 제시 문제에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만 살짝 바꿔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선지를 속 읽으면 선지 자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울 수 있다.</p> <p>다시 말해, 선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지문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선지를 읽자.</p> <p>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보면, '신'에 대한 언급들이 보인다. 지문에서 데카르트는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기서 'ㄷ, ㄹ' 선지를 거를 수 있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주장하였는데, ㄷ과 ㄹ에서는 데카르트가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의 존재'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을 기반으로 ㄷ과 ㄹ을 먼저 걸러냈어도 괜찮고, ㄱ부터 차근차근 판단했어도 괜찮다.</p> <p>ㄱ을 판단해보자. 데카르트는 '완전성' 개념이 오직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서만 유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의 감각이나 추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 ⇒ '의심을 하는 사람은 완전성 관념을 생각했다는 것' ⇒ '완전성 관념은 오직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서만 유래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추론에는 어떻게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느냐 말이다. 이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추론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p> <p>다음은 ㄴ이다. ㄴ을 판단할 때, '완전한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텐데'를 읽고 걸러낼 수 있었다면 아주 잘 읽은 것이다. 애초에 데카르트는 '완전한 것'은 신밖에 없으며, 신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p> <p>오히려 완전한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완전성' 관념은 오직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서만 유래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생각하였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1. 밑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 ⑤]

[오답률 4위(42%) 예측] : 독서-사회 28번 문항

[중요 개념 추론]	
[Killer-Point]	<p><b>28.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p> <p>①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을 부담한다.</p> <p>② 어떤 사실에 대해 ㉠을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p> <p>③ ㉠을 부담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돕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p> <p>④ ㉠을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도 계약이 비진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음을 증명해도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p> <p>⑤ ㉠을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약이 비진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②]</b></p>
	<p>일단은 ㉠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을 제시하거나 가정해주는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p> <p>이 지문에서 ㉠은 '상황'과 '증명 책임'의 관계를 제시해주는 문장이다.</p> <p>'상황'은 '비진의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앞문단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표시된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p> <p>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 ㉠의 내용이다.</p> <p>한 번 더 정리하면, '상대방이 표시된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p> <p>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p> <p>지문의 사례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A가 계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손해, 즉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A형)	
<p>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 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p> <p>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p> <p>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p>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 2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답 : ①]

[오답률 3위(약 52%) 예측] : 독서-사회 29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위 공직자인 갑은 재산 신고 액수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기 소유의 건물 X를 을에게 시가보다 낮은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을은 건물 X를 병에게 25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갑은 재산 신고 액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다시 건물 X의 소유권을 되찾고 싶어졌다.

- ① 갑은 건물 X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매도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겠군.
- ② 을이 건물 X를 15억 원에 팔겠다는 것이 갑의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없었다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겠군.
- ③ 갑과 을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임이 증명되면 병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건물 X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④ 갑과 을이 건물 X를 15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통정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갑은 건물 X의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수 있겠군.
- ⑤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거짓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데 대한 모의가 없었다는 점 외에 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의 거래는 유효하겠군.

[정답 : ③]

[Killer-Point]

<보기>에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는 항상 지문 내용과의 연결 지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기>의 상황이 이미 지문에서 제시해 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진의 의사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위의 예시에서 B가 A의 의사가 비진의임을 알았음이 증명되어 A와 B의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결 나기 전에, 이미 B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인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C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A와 B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에게 매매 대금과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C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무효로 돌리면 C가 손해를 보게 되어 거래 안전이 침해된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거래를 한 제3자는 기존 계약의 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 상황이다. '비진의 의사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

여기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에는 '갑'과 '을'의 계약이 대응될 것이고, '새로운 거래'에는 '을'과 '병'의 거래가 대응될 것이다.

이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5문단에 따르면 갑과 을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임이 증명되더라도 병의 건물 X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된다. 갑이 건물 X를 되찾기 위해서는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는 것을, 갑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병에게는 증명 책임이 없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4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률 2위(약 56%) 예측] : 독서-기술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보기>는 ㉠과 ㉡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 —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탐색하려는 자료가 뿌리 노드의 자료와 같으면 탐색이 끝난다. 만약 탐색하려는 자료가 뿌리 노드의 자료보다 작으면 ( A ) 자식 노드와, 그보다 크면 ( B ) 자식 노드와 비교한다. 이때 두 값이 같으면 ( C )의 비교로 탐색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아래의 노드의 자료와 비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탐색하므로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트리의 높이가 높아져 탐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B-트리에서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 여러 번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지만, 트리의 높이가 최소화되므로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횟수도 최소화되어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해진다. 실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 자료 구조가 구현될 때는 노드 안에서 자료들을 비교하는 시간보다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 D ) 걸리기 때문이다.

[Killer-Point]

	A	B	C	D
①	왼쪽	오른쪽	두 번	많이
②	왼쪽	오른쪽	세 번	많이
③	왼쪽	오른쪽	세 번	적게
④	오른쪽	왼쪽	두 번	적게
⑤	오른쪽	왼쪽	두 번	많이

[정답 : ①]

빈 칸이 무려 4개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정말 무섭게 생긴 문제이지만, 실제로 생긴 것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지문에 제시된 이진 트리의 정보 저장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읽은 학생들은 ( A )와 ( B )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나, ( C )와 ( D )는 다소 까다로웠을 수 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어떤 자료가 그 트리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우선 뿌리 노드의 자료와 비교한다(1차 비교). 여기서 두 값이 같으면 탐색 종료. 그렇지 않고 뿌리 노드의 자료보다 작으면 왼쪽 자식 노드와 비교하게 되고 뿌리 노드의 자료보다 크면 오른쪽 자식 노드와 비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는 한 번이다. 왜?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과 딱 한 번만 비교하므로. 그런데 왜 작으면 왼쪽일까? 입력할 때도 작으면 왼쪽 자식 노드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값이 같으면 탐색을 종료한다(2차 비교). 비교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B-트리에서는 하나의 노드 안에 여러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탐색 과정에서 하나의 노드 안에서 여러 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탐색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 탐색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자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노드에 있는 자료의 수는 B-트리보다 적지만, 대신 트리의 높이가 높다.

반면 B-트리는 반대로 노드에 있는 자료의 수가 많지만 트리의 높이가 낮다.

만약 노드 안에서 자료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노드에서 노드로, 즉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면, B-트리보다 이진 탐색 트리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드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수가 많더라도 트리의 높이가 낮은 것이 탐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4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률 1위(약 60%) 예측] : 독서-기술 4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생 병은 [2, 48, 35, 8, 30, 24]인 자료 목록 D를 이 순서대로 입력하여, ㉠ 이진 탐색 트리나 ㉡ 하나의 노드에 최대 3개의 자료가 저장될 수 있는 B-트리에 저장하려고 한다. (단, B-트리의 오버플로우 상태에서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자료들을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의 자료들 중 최댓값이 부모 노드로 올라가고, 원래의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각각 부모 노드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 ① D를 ㉠에 저장하면, 잎 노드에는 '24'가 저장되고 트리의 높이는 6이 되겠군.
- ② D를 ㉠에 저장하면,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된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겠군.
- ③ D를 ㉡에 저장하면, '2'는 '8'의 왼쪽 자식 노드에, '24'는 '8'의 오른쪽 자식 노드에 저장되겠군.
- ④ D를 ㉡에 저장하면, 잎 노드는 모두 세 개가 발생하고 뿌리 노드에는 '8'과 '30'이 저장되겠군.
- ⑤ D를 ㉡에 저장할 경우, '8'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노드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높이가 1로 유지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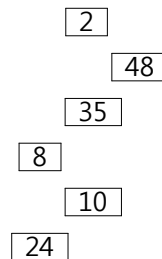
[정답 : ③]

[Killer-Point]

사실 '㉠이진 탐색 트리'나, '㉡B-트리'나, 지문에 있는 '과정'에 따라 직접 그려 보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직접 그려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직접 그리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한 추론을 통해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려 보자.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이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

다음은 ㉡B-트리이다. B-트리는 자료를 저장하는 과정이 이진 탐색 트리에 비해 훨씬 복잡하므로, 직접 하나씩 그려보면서 따라오기 바란다.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대 저장 개수가 3이므로, '2', '48', '35'까지는 그냥 입력되어 크기 순서로 배열된다.

2 35 48의 노드가 하나 생성된다.

그다음 '8'이 입력되면, 8은 2와 35 사이에 있는 숫자이므로 둘 사이로 들어가 2 8 35 48가 된다. 최대 저장 개수가 3개이므로, 이 상태는 오버플로우 상태이다.

<보기>에서 오버플로우 상태의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자료들 중 최댓값이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2 8과 35 48로 나뉘므로, 왼쪽 자료들의 최댓값은 '8'이다.

8이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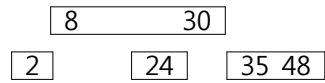
그러면 원래의 노드는 2와 35 48으로 분할된 채 부모 노드인 8의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에 배치된다.

그다음에 '30'이 입력되면 '8'보다 크므로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35' 앞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8'의 오른쪽 자식 노드는 30 35 48이 된다.

그리고 '24'가 입력되면 '8'보다 크므로 '8'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24 30 35 48을 절반으로 나뉘었을 때 왼쪽 자료들의 최댓값은 '30'이다. 그러면 '30'이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아까는 부모 노드에 8만 있었는데, '30'이 올라가 8 30이 된다. 그리고 원래의 노드는 24와 35 48로 분할되어 각각 '30'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24'는 '8'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아니라 '30'의 왼쪽 자식 노드에 저장되는 것이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1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1. 중세 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의미	가부(可否)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 없음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 의문사 있음 )
실현 방법	① ‘-아’ 계통의 어미 : ‘-녀’, ‘-(잇)가’ ② 의문 보조사 : ‘가’	① ‘-오’ 계통의 어미 : ‘-뇨’, ‘-(잇)고’ ② 의문 보조사 : ‘고’
예	어미 : 공덕(功德)이 하녀 저그녀(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보조사 : 이 썩리 너희 종가(이 딸이 너희 종이나)	어미 : 이제 어디 잇느냐(이제 어디 있느냐) 보조사 : 이 엇던 광명(光明)고(이 어떤 광명이나)

#### 2. 중세의 격 조사

##### (1)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스	높임의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스 / 나라 + 스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를 + 익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 (2) 부사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애/에/예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 음성 / ‘ㅣ’ 모음	바를 + 애 / 도솔천 + 예 서리 + 예 / 빅 + 예
익/의	특정 체언에만 연결(특이처격어)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밤 + 익 / 결 + 의
와/과	말음이 ‘ㄹ’, ‘모음’이면 ‘와’ 말음이 자음이면 ‘과’	달 + 와 / 싸ㅎ + 과

3. ‘ㅎ’ 종성 체언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의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다.

예) ‘똥(똥), 값(값), 가늠(가늠), 겨늠(겨늠), 열(열), 하늠(하늠), 나랠(나라), 앓(앓), 술(수), 앓(안)’ 등

②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 → 예) 나라 / 나랠

- ‘ㅎ’ 종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나타날 때 ‘ㅎ’ 없이 쓰인다.

③ 나라ㅎ + 이(주격 조사) → 예) 나라히

-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날 때 종성 ‘ㅎ’이 연음되어 나타난다.

④ 나라ㅎ + 과(부사격 조사) → 예) 나라과

- ‘ㅎ’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

4. 중세의 객체 높임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선어말 어미 없이 특수 어휘로 실현	-습/술-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	막습거늘 / 돕스븐니
	-줍/줄- (어간의 끝소리 ㄷ, ㅌ, ㅈ, ㅊ 뒤)	듣줍게 / 얻즈반
	-습/술- (어간의 끝소리 유성음 뒤)	보습게 / ㄱ초스반

- 후행 어미가 자음이면 ‘-습/줍/습-’, 후행 어미가 모음이면 ‘-술/줄/술-’

[선택지 해설]

11. ㉔

답은 ㉔야. ㉔의 ‘누네’와 ‘고해’는 각각 ‘눈 + 에’, ‘고ㅎ + 애’로 체언 ‘눈’과 ‘고ㅎ’ 뒤에 각각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야. 하지만 ‘애/에’를 사용하는 기준이 체언의 끝소리인 ‘ㄴ’과 ‘ㅎ’에 의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대신 모음조화에 의해 결정된 거야. 중세의 모음은 ‘양성 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 양성 모음에는 ‘·, ㅏ, ㅑ’, 음성 모음에는 ‘- , ㅓ, ㅕ’가 있어. 즉 ‘눈’에는 음성모음 ‘ㅓ’가 사용되어 음성모음으로 이루어진 부사격 조사 ‘-애’가, ‘고ㅎ’에는 양성모음 ‘ㅑ’가 사용되어 양성모음으로 이루어진 부사격조사 ‘-해’가 사용된 거야. 정리하면 ㉔의 예시들은 모음조화에 의해 다른 형태의 같은 부사격조사가 쓰인 예시로 ㉔을 확인할 수 없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㉔의 ‘이 엇던 사릅고’에서 ‘사릅고’를 분석하면 ‘사릅+고’야. 이때 이 문장은 ‘엇던’이라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야. 이에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는 ‘오’ 계통의 의문 보조사 ‘고’가 사용되어 의문문을 만들고 있어.

②를 살펴보자. ‘부텃 마를 듣즈보딛’에서 ‘부텃’은 ‘부텃+ㅅ’이며 ‘부처의’라는 의미를 가져. 즉, ‘ㅅ’이 관형격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중세 때는 ‘부텃’과 같은 유정 높임 명사나 ‘나라’와 같은 무정 명사 뒤에는 관형격조사 ‘ㅅ’이 쓰여. 다음으로 ‘父母 | 아드릭 마를 드르샤’에서 ‘아드릭’은 ‘아들 + ㄹ’이며 ‘아들의’라는 의미를 가져. 즉, ‘ㄹ’이 관형격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중세 때는 ‘아들’과 같이 높임의 뜻이 없는 유정 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 ‘의/이’가 쓰여. 정리하면 ㉔와 ㉔를 통해 유정 명사 뒤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는 높임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겨을헤 쓰면 도흐니라’에서 ‘겨을헤’는 ‘겨을ㅎ+에’로 분석 돼. ‘겨을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이 존재하던 ‘ㅎ종성 체언’에 해당 해. 다음으로 ‘누네 도흐 빗 보고져 고해 도흐 내 만고져’에서 ‘고해’는 ‘고ㅎ+애’로 분석 돼. ‘고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이 존재하던 ‘ㅎ종성 체언’에 해당 해.

④를 살펴보자. ‘부텃 마를 듣즈보딛’에서 높임의 대상은 ‘부텃 말’이야. ‘부처의 말씀’이지. 그런데 ‘부텃 말’ 뒤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있어. 이에 ‘부텃 말’은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 해. 그럼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높이는 높임법은 무엇이지? 맞아 ‘객체 높임법’이야. 현대의 객체의 높임법은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경로당에 갔다.’, ‘내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드렸다’에서 보듯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와 ‘모시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로 실현이 돼. 하지만, 중세 때는 객체 높임법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습/줍/습-’이 사용 돼. 이는 어간의 끝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듣즈보딛’는 분석하면 ‘듣- + -줍- + 오딛’로 어간이 ‘ㄷ, ㅌ, ㅈ, ㅊ’로 끝날 경우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줍-’이 사용되었어.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피동 표현**

- 능동 :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 피동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능동문	↔	피동문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잡-+-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능동사)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잡-+-히-+-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피동사)
개가 사람을 물었다.(물-+-았-+-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물-+-리-+-었-+-다)
몽룡이가 춘향이를 안았다.(안-+-았-+-다)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안겼다.(안-+-기-+-었-+-다)

- ①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뀐다.  
예외 :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도 있다. ㉠ 종이 올다. → 종이 올리다.  
통사적 피동문의 경우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 길이 넓다. → 길이 넓어지다.
- ②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대응된다.
- ③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대응된다.
- ④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아/-히/-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나 ‘-아/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바뀐다.

**(2) 피동 표현 만들기**

- ① 파생적 피동(단형 피동) : 피동 접미사를 이용하는 방법

피동 접미사	예
-이-	산이 <u>보이다</u> . 나뭇가지가 <u>꺼이다</u> . 이 글은 두 문단으로 <u>나뉘다</u> .
-히-	성문이 <u>닫히다</u> . 안개가 <u> 걷히다</u> . 책장에 책이 <u>꽂히다</u> .
-리-	그림이 벽에 <u>걸리다</u> . 나무에 사과가 <u>달리다</u> . 벽에 구멍이 <u>뚫리다</u> .
-기-	눈이 <u>감기다</u> . 실이 <u>끊기다</u> . 아기가 어머니 품에 <u>안기다</u> .
-되(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u>가결되다</u> . 수익금 전액이 문화 사업에 <u>사용되다</u> . 도시가 <u>형성되다</u> .



##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수령과 아전들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뜯기다.'에서 주어는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이며, 수령과 아전들에게 세금 뜯김을 당하고 있어. 그러므로 '피동문'에 해당 해. 즉 서술어 '뜯기다'에서 '-기'는 피동 파생 접미사로, 해당 문장은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이야.
- ②를 살펴보자. '그녀를 어제 우연히 만난 일은 신기하게 여겨졌다.'에서 주어는 '그녀를 어제 우연히 만난 일'이며 누군가에 의해 신기하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피동문이야. 서술어는 '여겨졌다'인데 분석하면 '여기- + -어지- + -았- + -다'야. 이 경우는 서술어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은 경우로 장형 피동문에 해당 해. 그런데 '여기다'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붙는 게 불가능 해. '\*여기이다/여기히다/여기리다/여기기다'가 불가능하잖아. 즉 이 경우는 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바꿀 수 없는 경우야.
- ③을 살펴보자.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는 주어가 '하늘이'로 하늘이 누군가에게 보임을 당하는 피동문이야. 이때 서술어는 분석하면 '보- + -아- + -다'로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되었어. 그런데 피동 접미사 '-이-'는 사동 접미사 '-이-'와 형태가 같아.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에게 그가 그린 그림을 보였다.'라는 문장은 주어인 '철수'가 영희라는 대상이 그림을 보게 만드는 사동문이거나. 즉, '보이다'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아.
- ⑤를 살펴보자. '이번 사건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질 것이다.'에서 서술어는 '잊혀질 것이다.'야. 그런데 '잊혀질'을 분석하면 '잊- + -히- + -어지- + -(으)ㄹ'이야. '-어지-'는 피동 표현 중 하나고, '-히-'는 피동 접미사인지 사동 접미사인지 알 수 없어. 그럼 '잊히다'로 '-히-'만 사용된 상태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의 흑역사는 금방 잊혔다.'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그의 흑역사'이며 누군가에게 잊힘을 당하고 있는 피동문이야. 그럼 '잊혀질'에는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 표현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이야.

##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의존 명사]

## 1. 특징

- 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존재하는 명사.
- ②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어 쓴다. → 관형어 V 의존 명사
- ③ 의존 명사는 ( 자립 형태소 )이다.
- ④ 예) 내게 먹을 것 좀 다오. / 어쩔 수가 없었다. /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는 법. / 커피 한 잔 / 학생 두 사람
- ④ 의존 명사와 어미, 조사의 구별 - 띄어쓰기
- ④ 예) 밥을 먹은 지도 꽤 오래 되었다. /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승모는 먹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 승모가 서운할 만도 했다.
- ⑤ 의존 명사 + '-하다', '-싶다'가 결합된 보조 용언(양하다, 체하다, 법하다, 뻔하다, 듯싶다 등)  
- 원칙적으로는 띄어 쓴다. 그러나 앞의 관형어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모르는 체하다 / 모르는체하다(허용)
- ⑥ 너희들(접미사) 어서들(보조사) 와서 피자, 치킨, 탕수육 들(의존 명사)을 먹어라.(알아두기.)

## 2. 의존 명사의 종류

- ① 문장에서 여러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의존 명사

·것 : 예) 낡은 것 / 마실 것 / 먹을 것 / 입을 것 / 큰 것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울 것이다.  
 공사 중이니 주의할 것.

- ②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의존 명사

·수 : 예) 어쩔 수가 없다. /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 ③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의존 명사

·따름 : 예)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따름입니다. / 막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저 기쁠 따름이다.  
·뿐 : 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예)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 이름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④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의존 명사

·대로 : 예) 아는 대로 설명하다. /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 기회가 있는 대로 정리한다.  
지칠 대로 지친 마음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  
·만큼 : 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 주는 만큼 받아 오다. /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다.

## ⑤ 수량 표현 의존 명사 (단위성 의존 명사)

·명, 개, 장, 마리, 대, 모금, 켈레 등  
예) 학생 세 명 / 지우개 한 개 / 종이 석 장 / 염소 두 마리 / 자동차 세 대 / 물 한 모금 / 운동화 다섯 켈레  
 참고 :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도 쓰이는 경우 : 사람, 뿌리, 그루, 바퀴, 병 등  
예) 학생 세 사람 / 파 한 뿌리 / 나무 열 그루 / 운동장 열 바퀴 / 콜라 세 병

## [선택지 해설]

## 14.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먼저 의존명사 ‘수’는 ‘모험을 하다 보면 죽을 수가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니가 그럴 수는 없어.’와 같이 대부분 ‘주격조사’와 결합하고 서술어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에서 ‘수’는 의존명사가 아니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야.

##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에서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명사야. 그리고 의존명사 ‘바’는 ‘기여한 바가 크다’, ‘알던 바와 다르다’에서처럼 주격 조사 ‘가’와도 결합이 가능하고, 부사격 조사 ‘와’와도 결합이 가능해.

③을 살펴보자.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따름입니다.’에서 ‘따름’은 ‘오로지 그것뿐이고 그 이상은 아님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의 의존 명사야. 그리고 ‘막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저 기쁠 따름이다.’, ‘언니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당황할 따름이었다.’, ‘네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고마울 따름이다.’와 같이 앞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인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무조건 ‘따름이다’라고 쓰여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로 사용 돼.

④를 살펴보자. ‘내가 웃고 있을 때에 그녀가 나를 보았다.’에서 ‘때’는 ‘때를 알리다’라고도 쓰일 수 있어. 즉 ‘때’는 앞에 관형어 없이도 쓰일 수 있으며,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자립 명사야.

⑥를 살펴보자. ‘저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줄 리가 있겠소?’에서 ‘리가’는 ‘그럴 리가 없다.’, ‘그가 나갔을 리가 없다.’라는 예시와 같이 앞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사용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쓰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소설 [31~34번 지문]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황후가 책을 많히 읽고 아들이 훌륭한 물건을 참된 관체에 문졌서니, 그 뜻이 장차 조를 천에게 올림자 함이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79p), 사용 설명서(p280)

[작품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줄거리]

신라 태자 김소선은 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남해 보타산에 간다. 소선은 죽순을 가지고 오다가 이복형 세징에게 빼앗기고 실명(세징으로 인해)하여 섬에 혼자 남게 된다. 그때 유구왕 백문현이 중국으로 가던 길에 소선을 구출하여 딸 백 소저와 약혼시킨다. 백문현은 간신의 참소로 유배를 가고 소선은 집을 나와 방향한다. 소선은 통소 솜씨 덕택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고 옥성 공주와 가까이 지내게 된다. **[EBS 수록부분] 어느 날 고국의 모후가 보낸 기러기가 편지를 전하자 소선은 기빠서(공주가 대신 읽어 주는 편지의 내용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뜨고 부마가 된다.**

**[㉮]** 실명한 상태에서 ‘편지의 내용을 듣고 북받쳐 눈을 떴다’는 서술만 보면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보다 ‘편지를 쓴 주체’에 있다. 이 ‘편지’는 소선이 떠난 지 4년쯤 된 시점에서 궁궐에 살던 기러기가 ‘석씨’, 곧 실명한 소선의 ‘어머니’가 써서 전해준 것으로 **소선의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실명-개안’ 모티프는 우리에게 친숙한 ‘심청전’에서도 등장하듯 제법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며 위와 같이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용된다.

백 소저는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다. 토번의 침략으로 소선이 출정하였다가 감금당하자 백 소저가 원수가 되어 그를 구출한다. 백 소저가 개선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임금은 그를 금성 공주로 책봉하여 소선의 둘째 부인이 되게 한다. 소선이 부인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자 세징의 죄악이 탄로 나고 부왕은 세징을 극형에 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선의 간청으로 세징의 형벌이 감해진다. 소선은 환국하여 금성 공주와 함께 왜국의 침범을 물리치고 왜국의 서울인 강호까지 가서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낸다. 소선은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 뒤, 부인들과 함께 보타산에 가서 승천한다(처음에 소선의 태몽부터 ‘적강’하는 내용이었음을 고려할 때 예정된 결말임).

**[㉮] 육미당기의 의미 & 소선과 세 부인**

소선은 총 세 부인을 가지게 되는데 낙랑왕인 옥성공주, 여릉왕인 금성공주, 그리고 금성공주가 남장을 하며 돌아다닐 때 혼약을 했던 관계인 설 소저까지 그 셋이다. 세 부인과 상의하여 각자의 시비를 김소선의 소실로 삼게 하니 김소선이 그들 각각의 처소를 정해 ‘육미당’이라 한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재가 불평 없이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련상황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김소선은 낙랑왕이 되며 옥성 공주와 혼인한다. 소선은 자신의 정혼자였던 여릉왕 윤경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을 앓게 되고, 여릉왕은 속세를 떠나 보타산으로 들어간다.

황후가 공주의 손을 잡으며 울어 가로되,

"부마의 병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가히 구하지 못할지라. 장차 어찌하리오?"

공주가 유순한 용모로 대답하여 가로되,

"부마는 복상(福相)이라. 하늘과 신명이 다 도우시니, 이제 비록 위중함이 이에 이르렀을지라도 깊이 염려할 바가 없삽고 또 헤아리건대 여릉왕은 선인(仙人)이라. 만일 부마의 병세가 장차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마땅히 와서 치료하리니, 원컨대 모후는 마음을 편히 가지소서."

황후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다가 밤이 깊자 환궁하더라.

이때에 **귀비** **곽씨**가 가장 천자의 총애를 받아 매양 천자가 황후를 예우함을 투기하여 모함코자 하나 꾀할 겨를이 없더니, 낙랑왕의 병으로 천자와 황후가 자주 취미궁에 가시매 곽씨가 **궁비 소매**로 하여금 황후의 친근한 **시녀 난향**에게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고 결탁하여 황후의 필적을 구하매 마침내 그 글자체를 모방하여 나무 인형에 옮겨 쓰되 말이 다 부도(不道)한지라. 또 **궁비 옥섬**으로 하여금 그 나무 인형을 천자의 침전 사면에 묻으니 궁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

천자가 부마의 병으로 인하여 과도히 근심하시다가 옥체가 불편하시거늘, 곽씨가 은밀히 소매로 하여금 나무 인형을 파내어 침전에 두었더니, 천자가 보시매 곧 황후의 필적이라. 곽씨가 곁에 있다가 울며 고하여 가로되, "황후가 첩을 모함하려고 이같이 흉악한 물건을 침전 근처에 묻었사오니, 그 뜻이 장차 죄를 첩에게 옮기고자 함이라. 첩은 원컨대 한번 죽어 황후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겠나이다."

천자가 대로하여 황후궁의 시녀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심히 하되 오히려 단서를 얻지 못하니, 천자가 더욱 노하여 황후를 폐하여 냉궁(冷宮)에 가두매 **무고(巫蠱)**의 **옥사(獄事)** 크게 일어남이라.

#### [tip-1] 고전, '필수적' 인물 정리

여러 인물들의 등장과 이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선악을 축으로 한 고전의 단순한 내용마저 종종 파악을 어렵게 하는데 이런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 일단 읽어 내려가자'는 식의 독서는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다시 읽으면서 시간을 좀 쓰게 되더라도, **인물 정리를 우선으로** 하자.

#### [어휘 확인] '부마와 부왕'

부마 : 임금의 사위

부왕

<sup>1)</sup>부왕(夫王) : 왕비가 자기의 남편을 이르는 말

<sup>2)</sup>부왕(父王) : 왕자나 공주가 자기의 아버지인 임금을 이르던 말. 또는 다른 사람이 왕자나 공주의 처지에서 아버지인 임금을 이르던 말

**[인물 정리 '김소선'** 김소선 ⇨ 옥성의 남편 ⇨ 낙랑왕 ⇨ 부마 = '황후와 천자(옥성 공주의 부모)의 사위 = 부왕의 사위

#### [tip-2] 천자와 황후는 중국의 인물들이므로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 인물인 **소선은 그들에게 '이방인'**이다. 그

러나 이로 인한 차별은커녕 병세를 걱정하는 황후의 모습이나 이 나라를 위한 전쟁에도 나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사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략)

여릉왕이 부친을 하직하고 일엽편주(一葉片舟)로 남해를 지나 보타산 해운암에 이르러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도인이 방금 동자와 더불어 학을 돌보는지라. 여릉왕이 급히 앞으로 가 배알하니, 도인이 놀라 물어 가로되, “네가 속연이 다하지 못하였거늘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여릉이 절하고 꿇어앉아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하니, 도인이 눈썹을 찡그리며 가로되, “네가 이곳에 옴으로 인하여 중국에 또 일이 많도다. 아직 이 암자에서 머물다가 황제가 너를 부르기를 기다릴지이다.”

여릉이 엎드려 절하고 명을 받들어 후원으로 물러가 천서(天書)를 다시 펴 읽고 옛 학문을 쌓아 익히니 정신이 더욱 상쾌하고 도술이 더욱 밝아 표연히 신선이 산다는 방장산과 봉래산을 떠올리고, 안기(安期), 연문(羨門)과 같은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구름과 하늘 사이에 몸을 낮춰 속세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황곡(黃鵠)\*이 땅벌레를 대함 같을 뿐만 아니더라.

하루는 도동 수인으로 더불어 후원에 있어 혹은 영지를 캐고 혹은 봉황(鳳凰)을 기르며 종일토록 노닐어 즐거이 돌아오기를 잊었더니, 홀연 도동이 들어와 고하여 가로되,

“사부가 부르나이다.”

여릉왕이 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동자를 따라 석탑 아래에 이른 즉, 도인이 가로되, “내가 밤에 천문을 보니, 중국에 일이 있어 천자가 방금 방을 걸어 너를 부르고, 김소선이 너를 생각하다가 병이 되어 명이 경각에 있으니, 너는 급히 가서 구하라.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미치지 못하리라.”

드디어 단약 한 알을 취하여 주어 가로되,

“이 약은 환혼단이라. 소선이 만일 이미 명이 끊어졌을지라도 이 약으로써 구하면 즉시 기사회생할지니라.”

여릉왕이 절하고 받은 후 울며 대답하여 가로되,

“제자가 이미 몸을 청정함에 깃들여 다시 진세(塵世)에 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도인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이것은 하늘의 정한 바이거늘 어찌 감히 하늘을 어기리오? 너의 세상 인연이 다하기를 기다려 내가 마땅히 너와 같이 극락에 돌아갈지니, 너는 이제 빨리 가고 다시 의심치 말라.”

여릉왕이 드디어 도인을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죽장(竹杖)을 땅에 던져 청룡을 만들어, 이윽고 올라타 순식간에 남해를 지나서 취미궁에 이르러 천천히 걸어 낙랑왕이 병들어 누운 침소에 이르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무고: 주술로 남을 저주함.

\* 옥사: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인한 사건.

\* 황곡: 신선이 타고 다니는 큰 새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한문 장편소설이다. 전반부는 「적성의전」과 매우 유사해서, 구약(救藥) 모티프와 형제 갈등이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남녀 결연과 영웅적 활약상이 펼쳐지며, 주인공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친 후 일본으로 원정을 가 행복을 받아 내는 이른바 일본 원정담이 전개된다. 이는 이전에 유행하던 소설의 모티프들을 적절히 차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신라 태자 김소선의 영웅적 일대기
<b>'수능특강' &lt;보기&gt;</b>	
고전 소설 중에는 실명(失明)한 등장인물이 개안(開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안의 계기는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다. 즉 실명한 등장인물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상봉하거나 혹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소식을 매개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극적으로 소식이 닿은 것에 감동하여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 이로 볼 때 <b>'실명-개안 모티프'</b> 는 고전 소설에서 가족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는 데 자주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point	(1) '실명-개안 모티프' (2) '부모로부터 받은 편지 그리고 개안' → '부모에 대한 효심'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④ 공주는 왕비 석 씨의 서간을 읽고,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소선을 뒤따라간 세징의 가족 사랑에 감동을 받았겠군. ⇒ 서간에 세징이 소선을 뒤따라갔으나 홀로 영약을 구하고 돌아와 모호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징의 가족 사랑을 느끼기 힘들며, 공주는 세징의 가족 사랑이 아닌 소선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왕비 석 씨의 마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다.
<b>「작품의 특징」(in 사용설명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후반에 창작된 한문 장편 소설로, 고전 소설의 다양한 모티프와 주제 의식을 담고 있음.</li> <li>• 신라 태자 김소선이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해 보타산에 다녀오는 우여곡절을 담은 이야기와 김소선의 부인 백 소저의 영웅적 활약을 담은 이야기 등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됨.</li> <li>• 구약(救藥)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불경을 소재로 한 「선우태자전」, 「적성의전」 등과 연관성이 깊음.</li> </ul>	
<b>「더 알아보기」(in 사용설명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미당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li> </ul>	
주인공이 부모를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	김소선은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혼자서 미지의 길을 떠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주인공이 부모를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왜 성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효심에 대한 극단적 강요일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하는 선한 인물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음.
일본을 정벌하는 이야기	일본 정벌담은 이 작품의 백미인데, 근대 이후 활자본 고전 소설로 간행된 이본(異本)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있음.

**한끼 볼 지문** "비교하기, <고전과 인물> / 평가원 - '2018학년도 6월 「낙성비홍」"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므로,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목 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렸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A]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요?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왓,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왓,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왓,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졸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문제 1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해설	⑤ 제시된 장면은 태수인 설인수와 원수인 경작(경모)이 만나 회포를 푸는 장면이다. 계급으로는 태수가 원수를 모시는 형편이지만, 그들은 계급 이전에 동서 지간이다. 둘 사이에 이러한 인연이 밝혀지면서 극존칭을 쓰던 설인수의 말이 편해지고 둘은 사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와 처의 안부를 물으며 흥도 보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물들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원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주로 대화를 통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들이 조롱하듯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일부 있으나 이는 갈등이 아니라 둘이 허물없는 사이임을 보여준다.
문제 2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b>&lt;보기&gt;</b>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li> <li>○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li> <li>○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li> <li>○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li> <li>○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li> <li>○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li> <li>○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li> </ul>	
문제 선지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p><b>정답 해설</b></p>	<p>①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감복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솔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 했다. 이로 보아 이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p>
<p><b>오답 풀이</b></p>	<p>설 태수와 이원수의 대화를 통해 이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원수가 되었는지의 과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p>
<p><b>문제 3</b></p>	<p><b>[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p><b>문제 선지</b></p>	<p>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p>
<p><b>정답 해설</b></p>	<p>② 조용은 어머니께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다시 월경 대사에게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가 꾸중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뜻을 관철시키는 태도로 보았을 때, 조용이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b>오답 풀이</b></p>	<p>①, ⑤ 나는 비록 벼슬은 낮지만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약한 처제를 홀로 남겨두고 소식조차 없었던 원수의 행동을 탓하고 있는 말에서 알 수 있다.</p>
<p><b>문제 4</b></p>	<p><b>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b></p>
<p><b>문제 선지</b></p>	<p>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p>
<p><b>정답 해설</b></p>	<p>④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른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p>
<p><b>오답 풀이</b></p>	<p>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른다.</p>

현대소설 [43~45번 지문] [윤후명, '원숭이는 없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87), 사용 설명서(p181)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점으로 가볍게.”

[작품 전체 줄거리]			
<p>특별한 생업이 없이 아내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 사람인 '나'와 연출가 김 형, 배우 김 형은 아파트 정기소독 날 원숭이 이야기를 한다. 원숭이를 보러 가자는 '나'의 충동적인 제안으로 '나'와 배우 김 형은 원숭이를 찾아 장터로 간다.(연출가 김 형은 아내를 핑계로 '원숭이 찾기'를 포기한다.) 장터에 왔으나 원숭이도 약장수도 보이지 않자 분노를 느끼고, 장터 아주머니로부터 언덕 너머에 원숭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원숭이를 찾아 나선다. 돌산을 지나 황량한 개펄에 도착했으나 한 사내가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돌아가라는 위협을 하고, '나'와 배우 김 형은 서로가 원숭이로 변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일상으로 사력을 다해 발걸음을 옮긴다.</p>			
<p>[tip] 소설은 아무리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작가에 의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위적 내용이다. 새로운 동네에 이사와 만나게 된 이들은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해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이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향을 묻는 질문은 서로 금기처럼 물어 보지 않는다. 부족한 경제력을 '금기'처럼 여기며 일상을 억압받는 인물들, 자유(원숭이)를 쫓으나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주목하자.</p>			
[작품의 이야기 구조] (in 사용설명서)			
출발지(일상) [EBS 수록]	장터	돌산 너머 황량한 개펄 [EBS 수록]	도착지(일상)
<p>특별한 생업 없이 무기력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내들이 원숭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남.</p>	<p>장터에서 원숭이를 보지 못하고, 장터 아주머니로부터 언덕 너머에 원숭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 나섬.</p>	<p>한 사내로부터 돌아가라는 위협을 받고, 배우 김 형과 '나'가 서로 원숭이로 변한 사실을 알게 됨.</p>	<p>사력을 다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함.</p>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원숭이는 없다」에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인물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만, 낯선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일상 세계로 복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원숭이'가 되었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 일상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lt;보기&gt; point</p>	<p>(1)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 (2) 낯선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 → 일상을 탈출,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한 좌절(원숭이라는 모습)</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극가 불평영리 '전편'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아파트 소독을 피해 집을 나온 '나'가 배우 김 형과 연출가 김 형을 작은 공원에서 만나 무료함을 달랜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디로 좀 움직여 보는 게 어떨까들. 소독약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 같아서."

나는 제안했다. 목이, 가슴이 무엇엔가 짓눌리듯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디, 뭐, 좋은 데라도 있나요?"

배우 김 형이 동조하는 눈치를 보였다.

"좋은 데긴 뭐 원숭이 구경이나 할까 하는 거죠."

나는 웃음을 띠고 우스개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서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은 나로서도 뜻밖이었다. 그 바로 직전까지 나는 그따위 계획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연출가 김 형이 카를카를 웃을 듯한 표정으로 "원숭이? **진짜 원숭이를?**" 하고 묻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장난처럼 나온 내 말에 왠지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이야기가 원숭이에 대한 것이었고, 실제로 소독약 냄새가 내 코끝에도 아른거리기 시작한 결과,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 본 소리였다. 아니, 내가 '원숭이 구경이나 할까' 하고, 입 밖에 냈을 때 내가 뜻한 것은 '진짜 원숭이' 구경이 아니라 그저 사람 구경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랬음이 틀림없었다. **그렇다. 내가 무료로 못 이겨, 혹은 어떤 강압감에 못 이겨 '원숭이 구경이나 할까'라고 중얼거린 것은 어디 사람 구경이라도 하러 가자는 뜻에 다름 아니었다.**

**[tip]** 어떤 강압감에 못 이겨 원숭이 구경이나 할까

원숭이를 찾으러 가는 장소가 동물원이 아니고 도시에서 떨어진 변두리 장터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동물원에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원숭이가 없다.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동물원에 있는 진짜 원숭이는 단지 화려하기만 한 공간에 억압되어 있는, 인위적 공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문득 책임감을 느꼈다. 늘 그렇듯이 아무 말이나 툭 던져 놓고 상대방에서 자세한 걸 물어 오면 '그저 그렇다는 얘기지, 뭐' 하고 얼버무려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손아귀에 덜미를 잡힌 느낌이었다. 왜 그럴까. 사람을 원숭이에 비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짐승의 경우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었을까.

"어찌 됐든 일어나 보자구요."

**[중략 줄거리]** '나와 배우 김 형은 원숭이를 찾다가 바닷가 근처의 마을까지 오게 되는데, 빨리 마을을 떠나라는 마을 사람의 말에 두 려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곧이듣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를 원숭이로 보았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원숭이 물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 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하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부리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 하지만 그 전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



고 있었다.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둘러야겠어. 이러다간 꼼짝없이.....”

‘꼼짝없이’라는 말 다음에 할 말이 죽는다는 것인지 원숭이로 영영 남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다.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다른 말은 더 없었다. 개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무딘 쇠붙이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왔던 길이 맞는지 어떤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까지 어둠이 들어와 꼭 차버린 느낌이었다.

그렇다. 그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화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뿐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 원숭이의 몸골은 더욱 불쌍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 ‘우리는 원숭이가 되어-’

- ① 처음 원숭이를 찾아 떠날 때와는 달리 해안에 도착한 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원숭이’의 모습을 보게 된다. 서로 원숭이가 되어버렸다는 이러한 비현실적 표현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는 등 **내면에 대한 추상적 진술의 연속은 주어진 지문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설은 ‘의도된 글’**이다. 수많은 문장이 이어지지만, 작가의 ‘의도된 의미’는 수많은 것이 아니며 **그 의미는 <보기>를 통해 미리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
- ② ‘나는 본인의 어둠(봉쇄되고 무력하게 된 상태)이 어떤 힘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게 어떤 힘인지 지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일상과 그리고 그로부터 탈출’이란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탈출을 방해하는 힘은 결국 ‘일상성’밖에 없다.** 즉 두 인물들은 해안에 도착한 후 이미 일상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서로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어둠과 불안을 느낀 것이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될수록 발걸음을 빨리하자니 자연 몸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을 하고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다.

- 윤후명, 「원숭이는 없다」 -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원숭이 찾기’를 통해 일상에서 소외된 무기력한 사람들의 자아 찾기와 좌절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의 자아 찾기는 <b>여로를 통해 구조화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는 인물은 그 자체로 삶에 소외된 존재이다.</b> 하지만 경제력이 인간 본연의 가치일 수는 없기에 일상에서 소외된 등장인물들은 참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원숭이’는 <b>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b> 하나는 <b>‘화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로 등장인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 줄 대상</b> 이다. 다른 하나는 약장수를 쫓아다니며 그에게 <b>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나 되는 존재</b> 이다. 등장인물들은 전자의 원숭이는 결국 찾지 못한 채 스스로 후자의 원숭이처럼 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여로를 끝내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의 <b>자아 찾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b>
주제	<b>일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아 찾기와 좌절</b>

‘수능특강’ <보기>	
<p>「원숭이는 없다」에는 윤후명 소설에 자주 보이는 여로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여로의 구조는 텍스트 안에서 인물이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동 경로에 따라 다시 출발지로 회귀하는 구조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있다. 여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물들이 바라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있다. 탐색은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출발지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현대 소설에서 여로를 통한 탐색의 대상은 ‘자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작품의 여로 역시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p>	
<보기> point	<p>• ‘여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떠나다’ → ‘현대 소설에서 주로 찾는 대상은, 자아’</p>
발문	<p>&lt;보기&gt;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답인 선지	<p>④ 등장인물들이 진짜 원숭이로 변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탐색은 결국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군.                  ⇨ ‘원숭이 찾기’가 자아 찾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원숭이를 찾는 과정에서 자아를 찾고자 한 것이지, 스스로 원숭이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원숭이가 된 후 공포에 휩싸인 두 사람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들의 탐색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p>
「이것만은 꼭!」(in 사용설명서)	
<p><b>[포인트 1] 여로의 구조</b></p>	
여로의 구조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안에서 인물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구조임.</li> <li>• 결핍과 결핍의 해소를 위해 탐색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임.</li> <li>• 현대 소설에서 탐색의 대상은 ‘자아’에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p><b>[포인트 2] ‘원숭이’의 의미</b></p>	
등장인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 줄 대상	<p>‘혜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p>
현실에 억압당하고 일상에 무기력한 존재	<p>‘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p>
<p><b>[포인트 3] 등장인물의 성격</b></p>	
‘나’, 연출가 김 형, 배우 김 형: 특별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	<p>⇒ 현실의 벽 앞에 무기력하고 좌절하는 존재</p>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자유와 일상>, 수능 - ‘2020학년도, 김기택 「새」 外”

<p>(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p>
--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문제 1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문제 선지	<p>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p> <p>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p> <p>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p> <p>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p> <p>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p>

정답 해설	④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볼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	<b>&lt;보기&gt;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
<b>&lt;보기&gt;</b>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문제 선지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정답 해설	④ 제시 글에서 '바람'을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에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바람'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바람'의 흔들리는 속성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새장에 갇힌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쫓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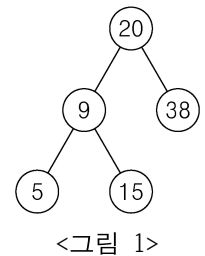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기술[38~42번 지문][이진 탐색 트리와 B-트리를 통한 자료 처리 및 탐색 과정]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트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이다. 트리에서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을 노드라 하는데, 트리는 각 노드가 상하 관계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노드의 바로 아래에 연결된 노드를 자식 노드, 바로 위에 연결된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한다. 트리에서는 어떠한 노드도 둘 이상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없으며, 부모 노드가 없는 최상위 노드를 뿌리 노드라 하고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잎 노드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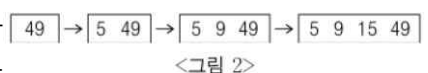
다양한 트리 중에서 ㉠이진 탐색 트리는 수처럼 대소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데 효율적이다.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료가 차례로 입력된다. 첫째, 입력할 자료를 뿌리 노드로 이동시킨다. 둘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자료를 입력한다. 셋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빈 노드를 만나 입력될 때까지 입력할 자료를 그 노드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보다 작을 때에는 왼쪽 자식 노드로, 그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시킨다. 이때 노드가 비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자리에 노드가 생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비어 있는 노드에 자료가 입력된다는 것은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노드에 자료가 저장됨을 뜻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 [20, 9, 38, 15, 5]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은 트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21’을 추가로 입력하면, ‘38’이 입력된 노드의 왼쪽 아래에 자식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자리에 ‘21’이 입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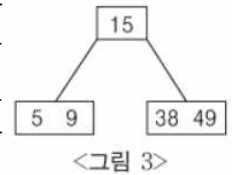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자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령 ‘5’가 <그림 1>의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20’, ‘9’, ‘5’와의 세 번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원래 자료 목록에서는 다섯 번의 비교를 거쳐야 알 수 있다. <그림 1>의 트리는 높이가 3이기 때문에 어느 자료든 세 번 이내의 비교로 탐색이 끝난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는 자료의 입력 순서에 따라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만약 [5, 9, 15, 38, 20]인 자료 목록을 이진 탐색 트리에 저장하면, 트리가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탐색의 효율성이라는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B-트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트리로, 각 노드가 둘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B-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처럼 자료를 비교하면서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노드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넘지 않는 한 노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노드에 자료를 저장한다. 또한 각 노드가 아니라 각 자료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이렇게 자료마다 자식 노드를 가지므로 하나의 노드에 둘 이상의 자식 노드가 달려 있을 수 있다.

이제 최대 저장 개수가 4인 B-트리에 [49, 5, 9, 15, 38, 40, 11]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한다고 하자. 처음 네 개의 자료가 입력되는 동안에는 최대 저장 개수를 넘지 않으므로 트리의 높이가 1로 유지되고, 각 자료가 입력될 때마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면서 B-트리는 <그림 2>와 같이 변한다. 다음 자료인 ‘38’은 ‘15’의 오른쪽에 입력되어야 하



지만, 이는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다. 오버플로우란 자료의 개수가 최대 저장 개수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B-트리에서는 어떤 노드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자료가 입력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중간 값인 자료가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부모 노드가 없을 때는 새로 부모 노드가 생성되어 그 노드로 올라간다. 그리고 원래의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각각 위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위 사례에서는 '38'이 입력되면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그다음에 '40'은 '15'보다 크므로 '15'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38'과 '49' 사이에 입력되고, '11'은 '15'의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9' 다음에 입력된다. 이렇게 자료들이 앞 노드의 알맞은 자리에 입력되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노드가 분할되면서 중간 값인 자료가 기존의 부모 노드로 올라가거나 부모 노드가 새로 생성되어 그 자리에 입력되므로,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된다. ㉠ 이러한 B-트리의 입력 방식은 트리의 높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 높이: 뿌리 노드에서 앞 노드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앞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노드의 개수.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트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C)이다. 트리에서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을 노드(C)라 하는데, 트리는 각 노드가 상하 관계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노드의 바로 아래에 연결된 노드를 자식 노드(C), 바로 위에 연결된 노드를 부모 노드(C)라고 한다. 트리에서는 어떠한 노드도 둘 이상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없으며, 부모 노드가 없는 최상위 노드를 뿌리 노드(C)라 하고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잎 노드(C)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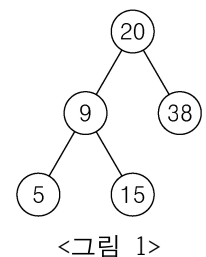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에 제시된 개념들이 매우 많습니다. 첫 문단인만큼,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원래 개념 정보가 나열되면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첫문단이니 특히 개념 정보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기출 분석이 잘 된 학생들은 이 문단을 읽으면서 DNS 스푸핑 지문의 2-3문단이나 퍼셉트론 지문의 3문단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차분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힘들 것 같다면 <그림>에 작게 써 놓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뿌리 노드'와 '잎 노드'는 '처음'과 '끝'인 만큼 중요도를 좀 두고 읽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뿌리)→자식(가지)→부모(가지)→자식(잎)]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다양한 트리 중에서 이진 탐색 트리(C)는 수처럼 대소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데 효율적이다.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료가 차례로 입력된다. 첫째, 입력할 자료를 뿌리 노드로 이동시킨다. 둘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자료를 입력한다. 셋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빈 노드를 만나 입력될 때까지 입력할 자료를 그 노드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보다 작을 때에는 왼쪽 자식 노드로, 그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시킨다. 이때 노드가 비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자리에 노드가 생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비어 있는 노드에 자료가 입력된다는 것은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노드에 자료가 저장됨을 뜻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 [20, 9, 38, 15, 5]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은 트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21'을 추가로 입력하면, '38'이 입력된 노드의 왼쪽 아래에 자식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자리에 '21'이 입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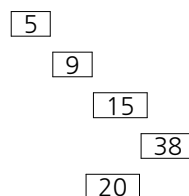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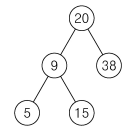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트리에 입력값을 입력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이해하기가 꽤나 까다로웠을 것이지만, 다행히 <그림>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문단 마지막의 예시(ㄱ)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생각이 꼬일 수 있으니, 천천히 직접 값을 대입해보면서 따라갑시다. 급하게 읽다가 꼬여서 마지막까지 읽고 다시 읽는 것보다, 처음 읽을 때 꼼꼼하게 읽는 게 낫습니다.
- ② 입력값을 각 노드에 입력하는 원리를 정리해봅시다.
1. 입력값은 뿌리노드부터 이동
  2. 빈 노드를 만날 때까지 직전 노드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
- ‘첫째, 둘째, 셋째’의 원리 설명이 이해가 어렵다면 예시(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자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령 '5'가 <그림 1>의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20', '9', '5'와의 세 번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원래 자료 목록에서는 다섯 번의 비교를 거쳐야 알 수 있다.」 <그림 1>의 트리는 높이가 3이기 때문에 어느 자료든 세 번 이내의 비교로 탐색이 끝난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는 자료의 입력 순서에 따라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만약 [5, 9, 15, 38, 20]인 자료 목록을 이진 탐색 트리에 저장하면, 트리가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탐색의 효율성이라는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두 개의 예시(ㄱ)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예시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원리(과정)를 따라가는 사고가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뜻입니다.
- ② 첫 번째 예시부터 이해해 봅시다.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했을 때 자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해준 것입니다. 항상 예시가 제시되면,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정확하게 연결시킨 상태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 ③ <그림 1>을 봅시다. 우리가 <그림 1>에서 '5'라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3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먼저 뿌리 노드로 이동해서 '20'과 비교합니다. '5'는 '20'보다 작은 값이니 왼쪽 자식 노드 '9'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9'와 비교해서도 작은 값이니, 또 왼쪽 노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5'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 '9', '5'가 입력되어 있는 세 개의 노드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④ 그럼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몇 번의 탐색이 필요할까요? 이진 탐색 트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이 [20, 9, 38, 15, 5]의 순서이므로, 총 5번 찾아야 마지막에 있는 '5'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진 탐색 트리를 활용했을 때는 세 번,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5번. 이진 탐색 트리를 활용했을 때 자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비교하는 값의 개수가 작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어떤 자료든 간에, 이진 탐색 트리의 '높이' 숫자 이하의 비교를 통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림 1>과 같은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어떤 자료든 간에 세 번 이하의 비교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⑥ 두 번째 예시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트리가 편향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그려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저는 그냥 결과를 그려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혼자서 [5, 9, 15, 38, 20]인 자료 목록을 이진 탐색 트리에 저장해보고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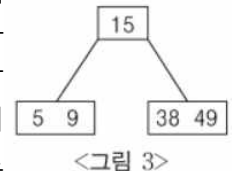
위와 같이 그려집시다.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자식 노드들이 전부 오른쪽에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B-트리(C)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트리로, 각 노드가 둘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B-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처럼 자료를 비교하면서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노드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넘지 않는 한 노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노드에 자료를 저장한다. 또한 각 노드가 아니라 각 자료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이렇게 자료마다 자식 노드를 가지므로 하나의 노드에 둘 이상의 자식 노드가 달려 있을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B-트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통점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를 비교하면서 저장 작업을 수행한다.'
- ② 다음으로 차이점이 제시되었습니다.
  1. 하나의 노드에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2. 노드에 있는 각각의 자료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 하나의 노드에 둘 이상의 자식 노드가 달려 있을 수 있다. 만약에 2번째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 2>보다는 <그림 3>을 보는 것이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림 3>을 보면 왼쪽 자식 노드에 5, 9 두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자료 5와 9가 각각 두 개씩의 자식 노드를 가지게 되면,  $\boxed{5 \ 9}$  노드는 총 4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 ③ 위와 같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처리로 빠르게 목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한 가지 들었으면 좋았을 생각은, 앞에서 '이진 탐색 트리'의 한계(편향 현상 발생 가능)를 제시해 주었으니, 그 다음에 제시된 'B-트리'는 그 한계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최대 저장 개수가 4인 B-트리에 [49, 5, 9, 15, 38, 40, 11]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한다고 하자. 처음 네 개의 자료가 입력되는 동안에는 최대 저장 개수를 넘지 않으므로 트리의 높이가 1로 유지되고, 각 자료가 입력될 때마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면서 B-트리는 <그림 2>와  $\boxed{49} \rightarrow \boxed{5 \ 49} \rightarrow \boxed{5 \ 9 \ 49} \rightarrow \boxed{5 \ 9 \ 15 \ 49}$  같이 변한다. 다음 자료인 '38'은 '15'의 오른쪽에 입력되어야 하지만, 이는 오버플로우(C)를 발생시킨다. 오버플로우란 자료의 개수가 최대 저장 개수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B-트리에서는 어떤 노드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자료가 입력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중간 값인 자료가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부모 노드가 없을 때는 새로 부모 노드가 생성되어 그 노드로 올라간다. 그리고 원래의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각각 위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위 사례에서는 '38'이  $\boxed{5 \ 9}$ 와  $\boxed{38 \ 49}$  같이 변한다. 다음 자료인 '40'은 '15'보다 크므로 '15'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38'과 '49' 사이에 입력되고, '11'은 '15'의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9' 다음에 입력된다.」 이렇게 자료들이 앞 노드의 알맞은 자리에 입력되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노드가 분할되면서 중간 값인 자료가 기존의 부모 노드로 올라가거나 부모 노드가 새로 생성되어 그 자리에 입력되므로,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B-트리의 입력 방식은 트리의 높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또 예시(F)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B-트리의 경우는 이진 탐색 트리보다 자료 입력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당연히 속도를 감속한 상태에서 최대한 제시된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면 정보 처리로 목표를 돌려야겠지만, <그림>도 두 개나 주었고 예시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지문에서 각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해 주었으니 우리도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최대 저장 개수, 즉 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의 최대 수는 4개입니다. 그러면 49에서 15까지 입력되는 동안에는 최대 저장 개수를 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자료가 노드에 입력될 때는 값이 작은 순서대로 왼쪽



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49부터 15까지 4개의 자료를 입력하였을 때 노드는 [5 9 15 49]의 형태가 됩니다.

③ 그런데 여기서 다음 자료인 38을 입력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 저장 개수가 4개인데, 하나를 더 입력하게 되면 노드에 저장된 자료가 5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의 수가 최대 저장 개수를 넘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④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노드를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로 나누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5 9 15 49]에 38이라는 자료가 추가로 입력되어 [5 9 15 38 49]가 되면,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중간 값인 자료가 부모 노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 3>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자료인 40이 입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40은 뿌리 노드의 값인 15보다 크기 때문에 뿌리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38 49]의 중간 값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들어가서 [38 40 49]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인 11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자료를 다 입력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15]

[5 9 11]

[38 40 49]

⑤ B-트리의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현재까지 입력된 값들 중 ‘중간값’이 부모 노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쪽으로 쏠릴 걱정이 없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가 가지는 한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⑥ 또한 B-트리는 트리의 높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5개의 자료를 입력했을 때 높이가 3이었지만, 지금 B-트리는 7개의 자료를 입력했음에도 높이가 2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더 낮은 높이의 트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매우 효율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만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트리 높이↑ → 탐색 효율성↓]

\* 높이: 뿌리 노드에서 앞 노드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앞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노드의 개수.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를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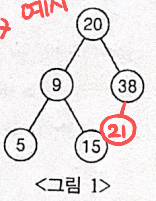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8-③ 트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이다. 트리에서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을 노드라 하는데, 트리는 각 노드가 상하 관계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노드의 바로 아래에 연결된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하며 위와 연결된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한다. 트리에서는 어떠한 노드도 둘 이상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없으며, 부모 노드가 없는 최상위 노드를 뿌리 노드라 하고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잎 노드라 한다.

다양한 트리 중에서 ㉠이진 탐색 트리는 수처럼 대소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데 효율적이다.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료가 차례로 입력된다. 첫째, 입력할 자료를 뿌리 노드로 이동시킨다. 둘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자료를 입력한다. 셋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빈 노드를 만나 입력될 때까지 입력할 자료를 그 노드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보다 작을 때에는 왼쪽 자식 노드로, 그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시킨다. 이때 노드가 비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자리에 노드가 생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비어 있는 노드에 자료가 입력된다는 것은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노드에 자료가 저장됨을 뜻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 [20, 9, 38, 15, 5]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은 트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21'을 추가로 입력하면, '38'이 입력된 노드의 왼쪽 아래에 자식 노드가 생성되면서 그 자리에 '21'이 입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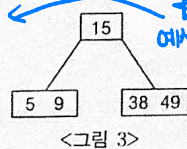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자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령 '5'가 <그림 1>의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20', '9', '5'와의 세 번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원래 자료 목록에서는 다섯 번의 비교를 거쳐야 알 수 있다. <그림 1>의 트리는 높이가 3이기 때문에 어느 자료든 세 번 이내의 비교로 탐색이 끝난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는 자료의 입력 순서에 따라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만약 [5, 9, 15, 38, 20]인 자료 목록을 이진 탐색 트리에 저장하면, 트리가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탐색의 효율성이 라는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인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B-트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트리로서, 각 노드가 둘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B-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처럼 자료를 비교하면서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노드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넘지 않는 한 노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노드에 자료를 저장한다. 또한 각 노드가 아니라 각 자료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이렇게 자료마다 자식 노드를 가지므로 하나의 노드에 둘 이상의 자식 노드가 달려 있을 수 있다.

이제 최대 저장 개수가 4인 B-트리에 [49, 5, 9, 15, 38, 40, 11]인 자료 목록을 이 순서대로 입력한다고 하자. 처음 네 개의 자료가 입력되는 동안에는 최대 저장 개수를 넘지 않으므로 트리의 높이가 1로 유지되고, 각 자료가 입력될 때마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면서 B-트리는 <그림 2>와 같이 변한다. 다음 자료인 '38'은 '15'의 오른쪽에 입력되어 <그림 2>와 같이 변한다. 하지만, 이는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다. 오버플로우란 자료의 개수가 최대 저장 개수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B-트리에서는 어떤 노드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자료가 입력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중간 값인 자료가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부모 노드가 없을 때는 새로 부모 노드가 생성되어 그 노드로 올라간다. 그리고 원래의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각각 위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위 사례에서는 '38'이 입력되면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그다음에 '40'은 '15'보다 크므로 '15'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38'과 '49' 사이에 입력되고, '11'은 '15'의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여 '9' 다음에 입력된다. 이렇게 자료들이 잎 노드의 알맞은 자리에 입력되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노드가 분할되면서 중간 값인 자료가 기존의 부모 노드로 올라가거나 부모 노드가 새로 생성되어 그 자리에 입력되므로,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B-트리의 입력 방식은 트리의 높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 높이: 뿌리 노드에서 잎 노드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잎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노드의 개수.

3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 ① 트리의 기능을 제시한 후, 자료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트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목적도 X,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도 X.
  - ② 컴퓨터 공학에서 트리가 고안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후, 트리의 발달 과정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 아예 언급 X.
  - ③ 트리의 의미를 소개한 후, 탐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두 가지 트리의 자료 입력 방식과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 이진 탐색 트리 & B-트리
  - ④ 자료 구조로서 트리가 갖는 장단점을 제시한 후,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구조의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 '트리 자체의 장점이 아님 + 필연성' '추정' 하긴 했는데 비어 있음.
  - ⑤ 트리의 출력 방식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나열한 후,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트리를 평가하고 있다. → 언급 X.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트리에서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는 여러 개일 수 있다. → 추론 가능.
  - ② B-트리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 → 기존 노드의 분할 개수 증가 & 부모 노드 없을 시 생성
  - ③ 자료의 입력 순서가 달라지면 이진 탐색 트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 ex. 가장 작은 수가 첫 번째면 오른쪽으로 리우됨 + '입력 순서에 따라'
  - ④ 자료 구조 중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트리라고 한다. → 트리가 아니라 '이진 탐색 트리'. B-트리는 가능하다.
  - ⑤ B-트리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기존의 부모 노드로 올라가는 자료는 새로 입력된 자료일 수 있다. → 새로운 자료가 입력됐을 때의 중간 값이므로 새로운 자료가 증가할 시, 부모 노드로 올라감.

39-④  
입력 순서  
왼쪽  
오른쪽

38-③  
39-⑤  
39-②  
이진 탐색 트리의 차이점



B-트리란 기본 노드에 최대 저장 개수만 넘지 않으면 여러 개 저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

4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과 ㉡은 모두 각 노드에 하나의 자료만 입력된다.
  - ② ㉠과 ㉡은 모두 자료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자료가 입력될 때마다 자식 노드가 생성된다.
  - ④ ㉠은 ㉡과 달리 자료가 추가로 입력될 때 비교 과정을 거친다.
  - ⑤ ㉠은 ㉠과 달리 세 자료가 입력되면 뿌리 노드의 자료가 바뀔 수 있다
- B-트리란 최대 저장 개수만 넘지 않는 한 저장 가능  
 B-트리란 계속 분할, 이 분할을 계속 위해 2개의 자식 노드  
 B-트리란 기본 노드에 저장한다 (오버플로우 없을 때)

41. <보기>는 ㉡와 ㉢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

<보기>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탐색하려는 자료가 뿌리 노드의 자료와 같으면 탐색이 끝난다. 만약 탐색하려는 자료가 뿌리 노드의 자료보다 작으면 (A) 자식 노드와, 그보다 크면 (B) 자식 노드와 비교한다. 이때 두 값이 같으면 (C)의 비교로 탐색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아래의 노드의 자료와 비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탐색하므로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트리의 높이가 높아져 탐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B-트리에서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 여러 번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지만, 트리의 높이가 최소화되므로 (D)에서 이동하는 횟수도 최소화되어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해진다. 실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 자료 구조가 구현될 때는 노드 안에서 자료들을 비교하는 시간보다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D) 걸리기 때문이다.

- |   | A   | B   | C   | D  |
|---|-----|-----|-----|----|
| ① | 왼쪽  | 오른쪽 | 두 번 | 많이 |
| ② | 왼쪽  | 오른쪽 | 세 번 | 많이 |
| ③ | 왼쪽  | 오른쪽 | 세 번 | 적게 |
| ④ | 오른쪽 | 왼쪽  | 두 번 | 적게 |
| ⑤ | 오른쪽 | 왼쪽  | 두 번 | 많이 |

4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학생 병은 [2, 48, 35, 8, 30, 24]인 자료 목록 D를 이 순서대로 입력하여, ㉠ 이진 탐색 트리나 ㉡ 하나의 노드에 최대 3개의 자료가 저장될 수 있는 B-트리에 저장하려고 한다. (단, B-트리의 오버플로우 상태에서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자료들을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의 자료들 중 최댓값이 부모 노드로 올라가고, 원래의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각각 부모 노드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 ① D를 ㉠에 저장하면, 잎 노드에는 '24'가 저장되고 트리의 높이는 6이 되겠다.
- ② D를 ㉠에 저장하면, 뿌리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된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겠다.
- ③ D를 ㉡에 저장하면, '2'는 '8'의 왼쪽 자식 노드에, '24'는 '8'의 오른쪽 자식 노드에 저장되겠다.
- ④ D를 ㉡에 저장하면, 잎 노드는 모두 세 개가 발생하고 뿌리 노드에는 '8'과 '30'이 저장되겠다.
- ⑤ D를 ㉡에 저장할 경우, '8'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노드가 하나 뿐인 상태에서 높이가 1로 유지되겠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파트 소독을 피해 집을 나온 '나'가 배우 김 형과 연출가 김 형을 작은 공원에서 만나 무료함을 달랜다.

"그런 그렇고 오늘은 어디로 좀 움직여 보는 게 어떨까들. 소독약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 같아서."

나는 제안했다. 목이, 가슴이 무엇인가 짓눌리듯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① "어디, 뭐, 좋은 데라도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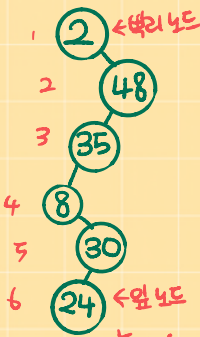
배우 김 형이 동조하는 눈치를 보였다.

"좋은 데긴 뭐 원숭이 구경이나 할까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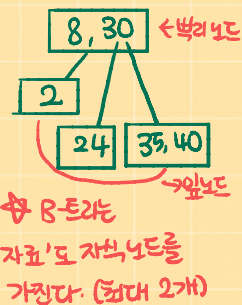
나는 웃음을 띠고 우스개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서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은 나로서도 뜻밖이었다. 그 바로 직전까지 나는 그때의 계획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연출가 김 형이 카를카를 웃을 듯한 표정으로 "원숭이? 진짜 원숭이를?" 하고 묻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장난처럼 나온 내 말에 웬지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이야기가 원숭이에 대한 것이었고, 실제로 소독약 냄새가 내 코끝에도 아른거리기 시작한 결과,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 본 소리였다.

#42. {2, 48, 35, 8, 30, 24}

이진탐색트리 - ㉠



B-트리 - ㉡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